곡성군, 도시 초등생 대상 '친환경농업 체험 지원사업'

도시 교류 확대 농산물 소비·신뢰↑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병행 운영
볍씨 파종 모내기 등 계절별 학습
협력 강화 도농 상생 모델 구축 등

전라남도 곡성군이 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체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농촌과 도시 간의 건강한 교류와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 나섰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체험 지원사업은 군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된 총 1,200만 원 규모의 신규 자체사업으로, 도시 아이들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와 판로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사업에는 동막영농조합법인 2건, 옥과농협 경제사업소 1건 등 총 3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동막영농조합법인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울 성북구와 친환경 쌀 공동구매 협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협약은 오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하다. 이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품평회를 거쳐 이룬 결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정덕초등학교와 석계초등학교 등과 연계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볍씨 파종, 모내기, 논 속 생물 관찰, 이삭거름 만들기, 추수 등 계절별 농작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도시 어린이들이 농업의 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대와 도농 상생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향후에도 도시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도시 아이들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군비로 새롭게 시작한 자체 사업인 만큼 지역 농업 활성화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폐의약품 배출 교육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예방

전라남도 화순군은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안전한 배출 방법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복용하고 남아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실수로 복용할 시 약물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수로 흘려보내거나, 일반 생활폐기물로 함께 버리면 수질오염·토양오염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의약품은 인제 작용을 목적으로 만드는 화학물질이며 약을 버리는 행위는 화학물질을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올바른 배출 방법 및 보건소, 보건지소, 관내 모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홍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은 △알약, 캡슐은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모아서 △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물약은 한 병에 모으거나, 용기 그대로 밀봉 △안약, 연고는 용기 그대로 새지 않게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몸소 익혀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앞으로도 폐의약품 분리배출이 스스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영광군수배 단오 전국연날리기
법성포 선창일원서 성황리 개최

전라남도 영광군과 법성포민속연연구소가 주최 주관해 지난달 30일 부터 31일까지 2일간 법성포 선창일원에서 개최된 '2025 영광군수배 단오 전국연날리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단오를 맞아 개최된 이번 대회는 조선 시대 전란 당시 군사 통신수단으로 활용된 신호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후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 이어져 온 법성포 민속연 날리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아마추어부 우승을 차지한 천영근(74세, 법성면)씨와 프로부 우승자 이덕영(71세, 경기 성남)씨가 뛰어난 연날리기 솜씨를 뽐내며 전통 연날리기의 예술성과 기술을 뽐냈고 탁 트인 법성포구를 배경으로 펼쳐진 연날리기 장면은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춘권 법성포민속연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세대를 이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영광군 법성포 선창일원에서 '영광군수배 단오 전국연날리기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대회 참여자들이 연을 만들고 있는 모습.

영광군 제공

곡성군, 외국인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월 10만원

전라남도 곡성군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0~5세 아이들로 전라남도에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라남도에 90일 이상 체류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 또는 영유아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확정된 출석일 수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쌀,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 올라

행정·물류 지원 강화

전라남도 담양군의 대표 농산물 '담양쌀'이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4일 봉산면 담양통합RPC에서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김범진 농협중앙회 총회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파리로 '풍요로운 담양쌀' 18톤이 선적됐다. 담양쌀은 2023년부터 프랑스를 포함해 체코, 미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단독으로 200톤 수출을 목표로 하며, 수출액은 약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물류비, 포장재 등 약 5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담양쌀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쌀 수출을 위해 물류비, 포장재 등 약 5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NH농협무역이 맡았으며 현지 수입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이스푸드'가 담당한다.

에이스푸드는 프랑스 내 40여 개 아시안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곳의 한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다. 담양쌀의 품질에 높은 만족을 보이며 올해도 수입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쌀의 품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1인 연간 5회… 취업 비용 부담 완화

전라남도 곡성군은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인 '면접정장 무료 대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면접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의 품목과 사이즈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구직자들이 필요에 맞는 면접 복장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에 주소지가 있거나 곡성 소재인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상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장을 대여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곡성읍 비빌언덕25 2층에 있는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에 방문하여 면접정장 대여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7일이며 인당 연간 5회에 한해 대여 가능하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 당부

고위험군 백신접종 등

전라남도 화순군은 최근 홍콩·대만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의 백신접종과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 환자 수는 올해 21주차인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한국과 교류가 많은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 등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일상 속의 감염예방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